

# 작지만 강하다...편안한 코너링에 안정적 고속 주행

수요 줄어도 인기 폭발 기아 전기차 라인업 막내 EV3 타보니

### 첨단 기능 탑재 운전 도와...가속·감속 반복에도 뛰어난 전비 전기차 우려 불구 신차 효과 지난달에만 4000대 넘게 팔려

기아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 중 막내인 EV3가 전 기차 화재 이슈로 인한 판매 부진이 우려에도 지난 달에만 4000대가 넘게 팔리는 등 신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소형차임에도 전기차의 장점과 우수한 상품성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6일 기아 광주 플래그십센터의 도움을 받아 EV3를 시승했다. 이날 탑승한 차량은 2WD 어스 트림에 선택 사항으로 빌트인캠, 모니터링, 19인치 휠, 선루프, 헤드업디스플레이, 드라이브와이즈, 프리미엄 스피커가 달린 약 5500만원짜리 '풀옵션' 모델로 외장은 스노우화이트필, 내장은 라이트 그레이가 적용됐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30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다.

이날 시승 코스는 기아 광주 플래그십센터가 제공하는 4가지 중 하나인 '90분 비동승' (Fine course). 기아 광주 플래그십센터(광주시 서구 농성동)에서 출발해, 광산구 월전동과 나주 남평읍, 광주대학교를 경유하는 약 46km 구간이다. 코스는 시속 100km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도 포함된다. 1시간 30분간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양한 첨단 기능과 운동능력을 테스트하기에 좋았다.

우선 EV3의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소형 차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성능을 보여줬다.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 스펙의 전륜 모터에서 뿜어내는 힘은 EV3에 과하다는 느낌을 정도였다. 또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도 코너링 시 동급 차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다.

특히 EV3에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i-페달 3.0'가 장착됐는데, 운전대 양 옆으로 설치된 페달 시프트 모양의 i-페달은 회생제도를 이용해 가속, 감속을 할 수 있어 운전 편의성이 높았다. 특히 정차하지 않는 순환도로나 외곽도로에서 그 장점이 더욱 두드러졌다.

기아 전용전기차로는 최초로 적용된 '기아 AI 어시스턴트'는 음성인식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해서 운전자가 운전에서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유지인 나주 남평읍에 도착해 EV3 외관을 살펴봤다.

EV3에도 역시나 기아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 적용됐다. 호랑이를 형상화한 이른바 '타이거 페이스(Tiger Face)' 디자인으로 EV6, EV9 등 타 전용전기차 모델들과의 디자인 일체감을 보여줬다. 패밀리 룩에 곡선보다 직선을 많이 활용한 디자인 때문에 작지만 강한 호랑이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실내는 소형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넓은 공간이 인상적이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하면서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평평한 바닥을 가졌다. 때문에 센터 콘솔에서 주변과 뒷좌석까지 넓다는 느낌을 줬다.



우기를 풍겼다.

실내는 소형차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넓은 공간이 인상적이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탑재하면서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평평한 바닥을 가졌다. 때문에 센터 콘솔에서 주변과 뒷좌석까지 넓다는 느낌을 줬다.

또 일반적인 차량과 달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앞으로 12cm 이동이 가능한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둔 것도 인상적이었다. 수납이 불가능한 건 단점이었지만, 운전자의 체형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휴대폰과 같은 물건을 올려 놓기에 적합했다. 뒷좌석은 시트 각도 조절이 가능해 뒷좌석 동석자도 편안하게 앉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운전 중에 느껴질 수 있었지만 속도와 충전량을 보여주는 12.3인치 화면과 내비게이션 등 인포테인먼트 조작이 가능한 12.3인치 화면도 충분히 크



지난 5월 출시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기아의 소형 전용전기차 EV3 내외관. <기아 제공>

고 눈에 잘 들어왔지만, 중간에 5인치 공조 컨트롤러를 삽입해 마치 하나의 화면으로 이어진 듯한 연출로 조작성과 디자인적인 요소를 극대화했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12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와 전면 유리창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시인성은 높아진 느낌을 줬고,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는 과속을 하는 경우 빨간불이 점등되며 안전한 운전에도 도움을 줬다. 더블 D컷 스티어링 휠도 멋스러움을 더했다.

90분간의 주행을 마치고 확인해본 EV3의 전비

는 6.3km/kWh. 앞서 한달여 전 탑승했던 신형 EV6(당시 5.0km/kWh)보다 나은 효율을 보여줬고 기아차가 발표한 복합전비(5.4km/kWh)보다도 높았다. 시승을 하면서 가속과 감속을 반복했는데도 뛰어난 전비가 나왔다.

EV3는 17인치 휠 및 산업부 인증 완료 기준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는 롱레인지 모델 501km, 스탠다드 모델 350km다.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롱레인지 모델 31분, 스탠다드 모델 29분이 소요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자동차 업계 전기차 안전 대책...점점 강화·배터리 진단 알림 확대

### 이상징후 조기 탐지 기술 개발 박차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자동차 업계가 앞서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는 9일 "안전한 전기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고객 안심 서비스를 첨단화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배터리 진단 고객 알림 서비스 연장 및 정밀 진단 기능 업데이트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월부터 시행 중인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는 무상보정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진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배터리 시스템 안전구조 강화,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 개발, 전기차 소방 기술 연구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현대차-기아는 2006년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배터리 두뇌 역할을 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제어 기술을 발전시켜왔고, 멀티급속충전 시스템 등 첨단기술도 일찍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KG모빌리티(KGM)도 이번 정부 대책에 적극 부응하고 전기차 안전성 강화에 최우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KGM은 전기차 화재 예방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인 스마트 충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호환성 테스트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스마트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정해진 주기별로 수집해 배터리 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충전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충전기를 말한다.

수입업체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배터리 안전성을 고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나 정책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배터리 화재를 사전에 막을 있도록 철저한 검사와 이상징후 조기 탐지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도 정부의 후속 조치 상황을 주시하며 안전성 강화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 현대차 아이오닉6, 미국 매체 '최고 전기차'

### 3년 연속 선정...'효율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전기차' 호평



현대차의 2025년형 아이오닉6(사진)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매체 '캘리블루북'의 '2025 최고 전기차'에 선정됐다. 아이오닉6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같은 매체가 선정하는 '최고 전기차'에 이름을 올렸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캘리블루북은 주행 성능과 내·외장, 주요 편의 기능, 주행거리, 충전 성능, 안전성 등 주요 항목을 수백여시간 주행 평가해 최고 전기차를 선정한다.

캘리블루북은 2025년형 아이오닉6에 대해 "최대 361마일(581km) 거리의 주행거리로 18분에 불과한 충전 시간은 현재 배터리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또 "테슬라 모델3의 강력한 라이벌",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스타일리시한 전기차"라는 평가도 곁들였다.

캘리블루북은 미국에서 자동차 구매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평가 매체 중 하나다. 매년 수백 대가 넘는 신차를 대상으로 차량 성능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각종 비용까지 종합 평가해 부문별 최고의 차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오닉6는 현대차 아이오닉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로, 2023 월드카 어워즈에서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자동차 전문 웹사이트 '에드먼즈'가 발표한 전기차 충전 시간당 주행거리 평가에서 1위를 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드 앤 메모리 바이 렉서스' 참가자 모집

### 26~28일 안동 고택서 전통 체험

렉서스코리아는 9일 '큐레이션 프로그램' '로드 앤 메모리 바이 렉서스(ROAD & MEMORY by LEXUS)'(사진) 세번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드 앤 메모리 바이 렉서스는 렉서스 고객만을 위해 참가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3회 진행되며 봄의 미식, 여름의 골프에 이어 가을은 전통의 흥과 가락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테마로 기획됐다.

로드 앤 메모리 바이 렉서스 세번째 여정은 가을을 주제로 경북 안동시에서 진행된다. 안동 제일의 고택인 농암종택 도슨트 투어, 렉서스 영파머신인 이석도 농부가 자연친화적 재배 방식으로 키워낸 사과를 곁들인 중가 음식, 한국의 흥과 멋을 느낄 수 있는 탈춤 등 안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통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는 '로드 앤 메모리 바이 렉서스'는 총 16명(2인 기준)이 참여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렉서스

고객은 고객용 앱인 '렉서스 라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강대환 렉서스코리아 부사장은 "로드 앤 메모리 바이 렉서스'의 가을 프로그램은 안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멋과 정취를 담은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렉서스 고객분들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드 앤 메모리 바이 렉서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렉서스 홈페이지와 고객용 앱 '렉서스 라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2024 WRC 그리스 랠리서 올해 네 번째 우승컵



현대자동차는 9일 2024 WRC 그리스 랠리에서 올해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9월 5~8일(현지시간) 그리스 라미아(Lamia)에서 열린 '2024 WRC(World Rally Championship)' 시즌 10라운드에서 참가선수 전원이 1, 2, 3위를 석권하는 트리플 포디움을 달성했다. 2024 WRC 그리스 랠리 우승을 기념하는 현대 월드랠리팀. <현대차그룹 제공>

## 국내 완성차 5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는 11~13일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기아, 한국GM,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등 국내 완성차 5사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대차는 전국 1234개 서비스 협력사(블루렌즈)

에서, 기아는 17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755개 서비스 협력사(오토큐)에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한국GM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83개 협력 서비스센터에서,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380개 협력서비스센터(마이 르노 앱 가입 고객 대상)에서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전국 35개 사회복지기관 관계자들이 기금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제공>

## 벤츠, 35개 사회복지기관에 2억5천만원 전달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9일 전국 35개 사회복지기관에 '메르세데스-벤츠 올투게더 (Mercedes-Benz All Together)' 기금 2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지난 6일 강남대로 전시장(더플래스호텔)에서 기금 전달식을 열고 수혜기관 관계자들에게 기금을 전달했다. 수혜 기관은 서울 '정운보육원'과 인천 '해성보육원' 등 전국 9개 시도 내 35개 사회복지기관으

로,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및 협력사가 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사연을 직접 받아 임직원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임진달 부의장은 "2014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출범 이래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